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한국사회에 만연한 율법주의 성경: 누가복음 11장 42~52절

Tag:

42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3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5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46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데도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렸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50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2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눅11:42-52)

성경에 예수님께서 경고하면서 저주까지 하신 일이 있는데, 특히 특정한 집단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

마태복음 23장13~29절까지, 누가복음 11장 42~52절까지이다.

두 본문 말씀은 비슷하나 각자 한두 구절에서 독창적인 구절도 있다.

기타 구절에서 고라신, 벳세다를 향하여 저주 하신 기록이 있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신 적은 있으시지만,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저주를 퍼붓듯이 하신 곳은 없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타공인 의로운 자들이었다.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지도한다.

(율법주의는 마치 달걀의 껍질과 같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법이 그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까지 등장하였다.(모든 층 자동 멈춤, 열쇠를 켜는 것은 일, 돌리는 것은 일이 아님.) 안식일에는 풀밭도 걸지 말아야 하고, 4Km 이상 걸어서도 안된다. 그러면 회당까지의 거리가 집에서 4.1Km 되는 집은 매주 안식일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믿음 없는 집? 4Km 이내로 이사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에 율법전통이 대세를 잡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가치관이 기울어지자, 결국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율법정신은 질식하게 되었다.

율법정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다. 그 방법으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인데,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것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사람까지 판단하게 됨.

올바른 태도는 주일을 성수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자신의 처지에서 성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이

되고, 그 결정에 성령께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정한 것을 다른 사람 판단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만약 판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올게 받아들인 것이라도, 시대와 지역과 형편에 따라서 율법정신에 훼손이 올 수 있다. 율법정신이 훼손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하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의 십일조까지 하면서, 율법의 더 큰 정신인 사랑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다고 하셨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위기 모면용으로 성전이나 거룩한 가치를 빙자해서 맹세를 하였다. 맹세할 당시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안되어 하는 수 없이 맹세를 취소해야 할 때가 오면 또 쉽게 취소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취소할 수 있어도,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율법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율법 자체가 율법 정신의 중요한 가치인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율법주의다.

국회 선진화법(동물국회 방지법, 날치기 방지법)으로 거대여당의 입법폭력을 막았고, 그 후 국회표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반대의견 발언 허용법, 기저귀차고 발언)를 만들었지만(식물국회 방지법),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국회선진화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현 집권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피터지게 일하는 국회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연의 사명은 사라진 셈이다.

죄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형편이 바뀌면서 율법 정신은 흐지부지 되고, 죄에 대한 욕망은 율법에 수정을 가하게 되고, 수정을 거듭하면서 율법정신은 훼손된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한 계인 셈이다.

결국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되었고, 이들 때문에 복음은 핏박을 받게 되었다.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선언은(마 5:18) 결국 율법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다.

율법에 시행령이 첨가되는 목적은 율법정신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실현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든지 사심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도 시행령이 첨가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결국에는 율법정신은 훼손된다. 언제 율법정신은 훼손되는가? 악한 자들이 율법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여기고 이용할 때 율법정신은 훼손된다.

언제 율법정신은 훼손되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정신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이 될 때 율법정신은 훼손된다.

오늘 말씀의 배경 사건이 그 좋은 예이다.

예수님이 식사하러 율법학자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놀라면서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실 수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위생 목적이 아닌 율법준수의 목적으로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손씻기를 하면서 깔꿈을 떨었으나, 일반 사람들은 불필요한 짓으로 여겨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랍비라고 알려진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일반상놈들처럼 음식을 먹으니 율법학자가 놀랄 수 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정신을 망각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신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장로교가 율법주의화 되어갈 때 감리교가 나타났고, 감리교가 율법주의화 되어갈 때 오순절이 나타났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종교나 율법주의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 밖에는 율법 정신을 완성할 수 없다.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율법정신이 사라지고 율법주의 망령이 지배하게 되면 그곳에는 성령의 바람이 절실히 해진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온 나라를 휩쓸어 가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아멘.

<p>13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23:13)</p> <p>15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23:15)</p> <p>*16 화 있을찐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찌라 하는도다 (마23:16)</p> <p>23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심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마23:23)</p> <p>*25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p>	<p>52 화 있을찐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눅11:52)</p> <p>46 가라사대 화 있을찐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대지 않는도다 (눅11:46)</p> <p>42 화 있을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심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찌니라 (눅11:42)</p> <p>*43 화 있을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눅11:43)</p>
---	--

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23:25)

27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23:27)

29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마23:29)

44 화 있을찐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눅 11:44)

47 화 있을찐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눅 11:47)

<찬양예배>

제목 : 일어나 기도하라

성경: 누가복음 22장 46절

Tag: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눅22:46)

- 자는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자는 것이 위험하다.
  -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 우리가 방심하면 시험에 들어가게 된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 시험에 걸리게 된다.
  -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묶어 두어야 한다.
  -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조종할 수 없게 하라.
  - 욕심이, 사람이, 지위가, 두려움이, 세속적이고 사소한 갈망이 우리를 끌고가지 못하게 하라.
- 
-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자!
- 
- 이영은 장로의 구원과 가족 구원.
  -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복음사명.
  -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
  - 성도들의 가정에 복된 은총
  - 각자의 돌파를 위한 기도
  - 김은숙 사모의 은사활성화를 위한 기도

